

사회

‘가슴 따뜻한’ 동구민들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1만명당 462명 전국 최고

전남선 영암군 가장 많아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광주 시 동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24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광주시 동구에 장기기증 의사를 공식 등록한 사람은 1만명당 462명으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 현재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은 80만8924명으로 인구 1만명당 159명 뿐이었다.

이처럼 동구가 ‘가슴 따뜻한’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이 된 것은 지난해 광주 동구보건소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아직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소극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기증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동구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소에만 30여명 이상이 기증을 희망해 왔다”며 “일선 동과 인구의 대형병원 등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대형병원 등에 협조를 얻은 것이 효과를 낸 것 같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에 이어 장기기증 등록자 수가 많은 지역은 울산 동구(인구 1만명당 452명), 서울 서초구(348명), 서울 종로구(334명), 서울 강남구(331명), 울산 남구(324명) 순으로 집계됐다.

광주(1만6113명, 1만명당 110명) 지역에서는 동구에 이어 서구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광산구(69명)·남구(67명)·북구(63) 순이었다.

전남(1만7175명, 1만명당 90명)은 영암(220명)이 가장 많았으며 목포(147명)·순천(130명)·나주(100명)가 뒤따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에선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져 시민의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6%(45만4497명)로 남성보다 장기기증에 더 적극적인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8월말 현재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10만315명(장기기증 83만9349명, 골수기증 20만86명)이며, 이식 대기자수는 2만2710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Table with columns: 시군구명, 등록자수, 인구 1만명당. Lists cities like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도, 구례, 강진, 해남, 남원, 함평, 영광,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 보성, 순천, 신안, 여수,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 2011 장기이식 통계연보

광주 시내버스 ‘추석파업’ 없다

28일까지 추가협상·사실상 타결, 내부 조율만 남아

광주시내버스 노조가 사실상 총파업을 철회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광주시청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중재로 시내버스 노사가 최종 협상을 벌였으며 그동안 정점이 됐던 임금인상 3.95%와 무사고 수당 2만5000원 인상 등에 잠정 합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내버스 노사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서 광주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 내에서 기존 임금지급방식의 시급제 전환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는 28일까지 5일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노사가 임금인상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합의한 만큼 협상 타결로 봐도 된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추석연휴 버스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성담은 송편

추석을 1주일 앞둔 24일 오전 광주시 북구청 대회실에서 북구지역 자원봉사자들이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할 송편을 정성스럽게 빚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and tomorrow (오늘 하루 맑음).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like Seoul, Incheon, Gwangju, and Busan. Also includes tide information for the coast.

Advertisement for 'Chungmu Gong' (충무공 이순신 제독 승전지 해상순례) held on September 13th in Gyeongnam. Includes details about the event, ticket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광주·전남 학교 272곳 비만 오면 ‘졸졸’

비만 오면 천천히나 벽면에서 물이 새는 광주·전남지역 학교가 무려 2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김태년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급 학교 누수실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비 새는 초·중·고등학교는 광주 31곳, 전남 241곳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경기도(282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누수 학교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서울 172곳, 경북 81곳, 충북·전북 77곳, 충남 70곳, 대구 38곳, 광주 31곳, 부산 25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181개교에 달했다. 이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합한 전체 학교수(1만1599개교)

의 10.2%를 차지하는 수치다. 교실 단위로 따지면 총 6312실로 학교당 평균 5개 남짓에서 비가 섰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16개교, 중학교 324개교, 고등학교 227개교, 기타 14곳 등이었다.

그러나 누수 학교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수공사 없이 응급조치만 한 채 울여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했더라도 추가 예산을 배정받는데 보통 수개월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HANSATON (국제보청기) celebrating 30 years. Features a 30% OFF SAL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in Korea.

Large advertisement for 'Fantasia Jeju' (환상제주)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like 'Jeju Island Golf Tour' and 'Jeju Island Adventure'.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ravel agencies.